

19세기 영남지역 중기(重記)를 통해 본 지방관아의 조직과 기록물 연구*

Organizations and Records of Local Government Office in the 19th Century Through an Analysis on the Transition Documents in Yeongnam Region

손 계 영(Son, Ke-young)**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지방관아 기록물의 종류와 형태 |
| II. 지방관아의 공간·관속·조직 | 1. 절목(節目)·사목(事目) |
| 1. 지방관아의 공간과 건물 | 2. 안(案)·대장(大帳) |
| 2. 지방관아의 관속(官屬)과 조직 | 3. 완문(完文)·소지류(所志類) |
| III. 조직별 업무와 기록물 | 4. 등록(騰錄) |
| 1. 육방임(六房任)의 업무와 기록물 | V. 맺음말 |
| 2. 기타 색임(其他 色任)의 업무와 기록물 | |

초 록

조선시대 지방관아는 지역을 다스리기 위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간과 조직·사람이 필수적으로 존재하였고, 행정 업무의 결과를 통해 지방관아의 기록물이 생산되고 관리·보관되었다. 지방관아의 건물과 공간은 첫째, 수령의 통치와 생활공간, 둘째, 관속들의 행정업무 공간, 셋째, 창고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고, 관속의 규모 측면에서도 대규모 기관이었기 때문에 조직구조도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관아의 조직은 크게 육방임과 기타 색임으로 구분하여 호장(戶長)·이방(吏房)·호방(戶房)·형방(刑房)·병방(兵房)·예방(禮房)·공방(工房)의 육방임 업무와 생산 기록물을 살펴보고, 기타 색임의 업무를 살펴보았다. 또한 19세기 영남지역 중기(重記)에 기재되어 있는 물목명 가운데 기록물류를 추출하여 지방관아에서 조직별로 관리하였던 기록물류를 크게 절목(節目), 안(案), 대장(大帳), 완문(完文), 등록(騰錄)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키워드: 지방관아, 조직업무, 기록물, 19세기, 중기

ABSTRACT

During the Joseon period, space, organization, and personnel were essential in order to perform the administrative work for local governance. For that reason local government records were created, managed, and stored as the results of its administration. Buildings and spaces of local government office can be divided in 3 sections such as 1) administrator's space for governance and living; 2) petty officials' administrative space; 3) granary space for store rations and grains paid as tax. Because of its grand scale, a local government office had considerably complex organizational structure. In order to survey the types and forms of local government records, focusing on six transition documents (*junggi*, 重記) in the 19th Century Yeongnam Region, this study selected the record type documents in the item lists of the transition documents, then, classified the record type documents which were managed by the organizations in local government offices with several types: program of items (*jeolmok*, 節目), list of personnel or land (*an*, 案), register (*daejang*, 大帳), certified copy (*deungnok*, 騰錄) and muniment (*wanmun*, 完文), and examined these documents.

Keywords: Local government office, Organization, Record, 19th century, Transition document (Junggi)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4S1A5A8013023)

이 논문은 2015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조교수

•논문접수: 2017년 2월 20일 •최초심사: 2017년 2월 28일 •게재확정: 2017년 6월 13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2), 237-262, 2017. [http://dx.doi.org/10.16981/kliiss.48.201706.237]

I. 머리말

조선의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는 중앙에서 지방의 각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하고, 파견된 지방관이 해당 지역의 수장이 되어 그 지역민을 통치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파견된 지방관을 제외하고는 지방관아를 운영하는 구성원 관속(官屬)들은 모두 해당 지역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 각 지역의 행정과 운영은 자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방관아는 지역별·시기별로 그 규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만, 19세기에 작성된 오횡묵(吳弘默)의 『함안총쇄록(咸安叢鎖錄)』을 살펴보면 함안군 관아에 소속된 관속의 수가 무려 200명이 넘는 정도로 대규모 기관이었다. 이러한 규모의 지역관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였고, 관아의 주요부서 수장인 이서(吏胥)들에 의해 지방재정의 운영, 중앙과의 소통, 문서작성과 관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지방관아는 중앙정부가 지방을 통치하는데 있어 중요한 매개체이자 해당 지역민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공간이었다. 따라서 중앙에서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 지방관아와 소통하거나 지방관아에서 해당 지역민을 다스리기 위해 소통하려면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무수한 기록물이 생산되었다. 지방관아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어떤 방식으로든 관리되고 보존되어야만 지방관아의 운영과 지역민의 통치가 가능하였던 것이다.

조선시대 중앙 정부와 왕실의 기록물 생산·보존·편찬 등에 관한 연구는 2000년 이후 시작되어 그리 많은 양은 아니지만, 중앙 정부와 왕실의 기록물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오항녕 2008; 신병주 2008; 김혁 2002; 윤훈표 2000; 백선휘 2007; 이한희 2007). 반면, 중앙의 기록관리 연구에 비해 지방정부와 지방관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진행되어 왔다. 예컨대 지방관아에서 생산되었던 대표적인 기록물로 민인들 상호간의 소송 문서인 민장류(民狀類)와 지방행정기관 상호간 행정 문서인 보첩류(報牒類)를 들 수 있는데, 이들 문서에 주목하여 낱장으로 생산된 기록물을 지방관아에서 어떻게 관리하였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¹⁾ 지방관아의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중기와 읍지 자료를 분석하여 지방관아의 기록물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룬 연구도 진행되었다.²⁾ 이외에도 특정 중기 자료를 중심으로 중기에 기록된 지방관아의 기록

1) 김태웅의 연구에서는 갑오개혁을 전후로 공문서 관리에 대한 법규 제정, 문서전담기구의 설치, 기안제도의 도입, 등록에 의한 기록관리 방식 유지 등을 살폈으며, 중기(重記)·보첩류(報牒類)·근대정부기록류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전근대 지방관아의 문서관리 특성을 검토하였다(김태웅, 2000). 김현영의 연구에서는 지방관아에서 생산·관리되었던 문서의 유형을 민인들 상호간의 소송 문서, 민인이 지방행정기관에 공증을 요청한 문서, 중앙이나 지방 행정기관 상호간예의 필요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 구분하여 지방행정기관에서 이들 문서를 어떻게 생산·처리·보존하였는지 문서관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김현영, 2006).

2) 남권희의 연구에서는 지방관아에서 지방관의 교체시 관아물품의 인수인계를 위해 작성된 문서 중기(重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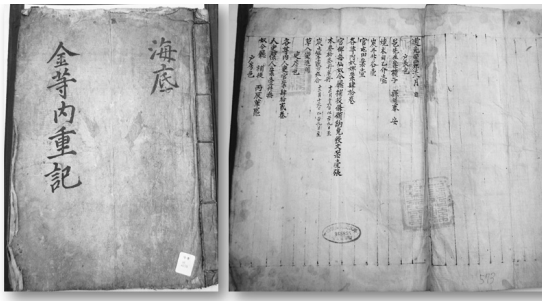
물을 분석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는데, 19세기 강원도 영월부, 경상도 안음현과 동래부, 전라도 임실현과 순천군·동복현·광양현·고산현·장수현 등의 관아에서 작성된 중기를 대상으로 분석되었다(남권희 2012; 조미은 2012; 남권희 2014; 남권희, 진유라, 강유현 2014; 진유라 2015). 이와 같이 지방관아 기록물에 대한 관심이 중앙·왕실에 대한 관심보다 낮은 것은 지방관아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성과가 부족하다는 점과 지방관아의 조직·구성·기록물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으며, 많지 않은 지방관아 기록물 연구가 중기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도 지방관아의 조직과 기록물을 알 수 있는 자료의 부족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조선시대 중앙·지방·지역민의 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지방관아’에 주목하여 지방관아에서 생산한 기록물은 어떤 공간과 관속에 의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지방관아의 조직과 업무에 초점을 맞추어 해당 조직과 업무에 따라 생산하였던 기록물의 종류와 형태를 추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방관아의 조직과 구성, 해당 조직의 담당자를 주요 요소로 파악하여 해당 조직과 인물들이 활동하였던 공간, 즉 관아 내부 공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직·인물·공간·기록물의 관점에서 지방관아의 기록물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주요 대상 자료인 중기(重記)와 읍지(邑誌) 자료를 중심으로 지방관아의 조직과 조직별 업무를 살펴보았으며, 영남지역 지방관아에서 생산·관리하였던 기록물을 살펴보기 위해 19세기에 작성된 중기(重記) 자료를 분석하였다. 중기 자료는 각 관아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정기적으로 기록한 회계장부 또는 물품조사서의 성격을 지닌다. 즉 중기 자료에는 각 지방관아에 어떤 기록물을 관리·보관하였는지를 알려주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의 주요 자료로 이용하였다. 중기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명 가운데 기록물류를 추출하여 지방관아에서 생산·관리된 기록물의 종류와 형태를 다루고자 한다. 중기 자료는 각 지역별로 다양하게 현존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영남지역 현존 중기를 정서하여 2권의 자료집으로 간행된 『중기(重記)』(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09)에 수록된 중기 자료(5종)와 개인 소장 중기(1종) 등 총 6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중기 자료 6종은 1842년 봉화현 중기, 1871년 영천군 중기, 1882년 자인현 중기, 1886년 합천군 중기, 1887년 예천군 중기, 1889년 현풍현 중기이며, 형태와 소장처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주목하여 중기에 기록된 지방관아의 서적·책판·문서 및 관련 용품들이 어떻게 관리·보관되었는지를 분석하였고, 읍지 및 지도를 중심으로 지방관아의 기록물 보관처를 살폈다(남권희,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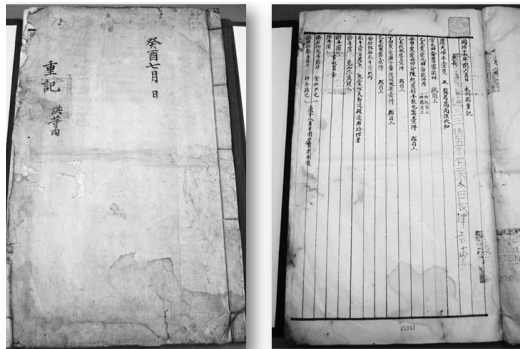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8권 제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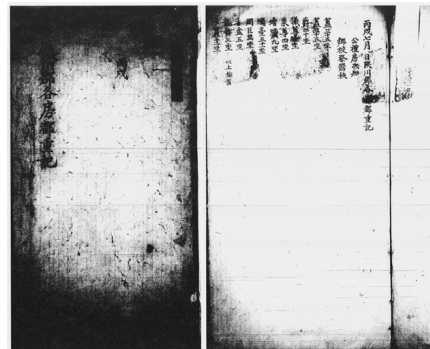
〈그림 1〉 1842년 봉화현 중기
(고려대 도서관, 만송B8 A3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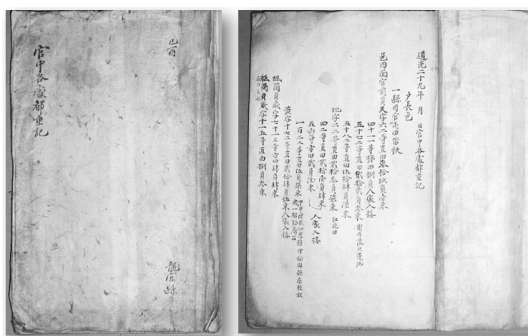
〈그림 2〉 1882년 자인현 중기
(개인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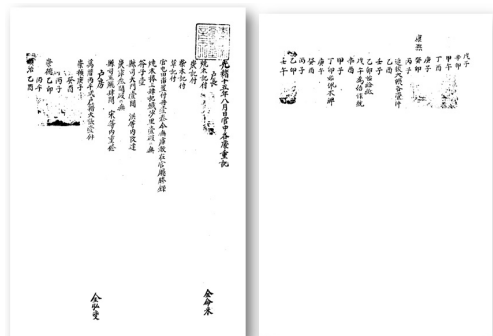
〈그림 3〉 1871년 영천군 중기
(고려대 도서관, 육당B8 A52)



〈그림 4〉 1886년 합천군 중기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21842)



〈그림 5〉 1887년 예천군 중기
(동국대 경주도서관, DP08072)



〈그림 6〉 1889년 현풍현 중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3633)

II. 지방관아의 공간·관속·조직

조선시대 지방관아는 중앙정부와 해당 지역민을 연결하는 중요 기구로서, 지방재정의 운영, 중앙 및 각 영(營)·읍(邑)과의 소통, 지방민에 대한 직접적 통치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때문에 지역의 부세·군사·호구·농업·교육·시장 등의 행정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간과 조직·사람이 필수적으로 존재하였고, 행정적 업무과정과 결과를 통해 지방관아의 기록물이 생산되고 관리·보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지방관아의 공간과 관속 및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지방관아의 공간과 건물

지방관아의 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로는 각 지역의 고지도 및 읍지·사례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고지도에서는 지방관아의 공간을 생략하여 ‘읍(邑)’ 또는 ‘읍치(邑治)’로 표기하거나 ‘향교(鄕校)’와 ‘아사(衙舍)’ 정도만을 표기하는 경우가 상당수이기에 관아 공간과 건물을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소수의 사례에서 상세한 관아 건물 위치와 건물명을 확인할 수 있어 대략적인 지방관아의 공간을 살펴볼 수 있다.

지방관아 건물과 공간은 그 성격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크게 수령의 공간, 관속들의 행정업무 공간, 양곡(糧穀)·세곡(稅穀) 등을 보관하는 창고 공간 등으로 구분된다(지방관아의 건물에 관해서는 이수건 1989; 이회권 1999; 김기덕 2004 참조).

첫 번째인 수령의 공간이라 함은 수령의 통치공간과 수령가족의 생활공간을 포함한 개념이다. 지방관아의 수장인 지방관은 중앙에서 파견되어 해당 지역의 수령으로 부임한 외지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수령의 가족 또는 지인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고, 이들의 생활에 필요한 식재료 및 생활물품 등을 조달하는 공간도 존재하였다. 따라서 수령 통치공간으로는 수령이 정무(政務)를 처리하였던 동헌(東軒), 수령을 보조하는 비서 또는 자제가 거처하였던 비서실 성격의 책방(冊房), 수령의 각종 명령을 전달하고 즉각적으로 소식을 전달하였던 사령(使令)의 거처 흡창방(吸唱房) 등이 이에 해당되고, 수령가족 생활공간으로는 수령가족의 살림살이를 위한 내아(內衙, 內東軒 또는 西軒이라고도 함)가 주요공간이며, 수령의 살림을 위한 식재료 및 생활물품을 조달하였던 관청(官廳)·현사(縣司) 등도 수령공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수령 공간은 전체 공간의 극히 일부분인 반면, 두 번째인 관속들의 행정업무 공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 중 대표적인 건물로는 객사(客舍)를 들 수 있다. 객사는 주로 지방관아의 중앙에 위치하여 전패(殿牌)·궐패(闕牌)를 모셔두고 한 달에 두 번씩 향궐망배(向闕望拜)하는 기능을 가졌으며, 중앙관료와 여행객 등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졌다. 객사 이외

에도 지방재지사족들의 향촌자율기구에서 지방통치행정을 담당하는 성격으로 변화한 향청(鄉廳), 이서(吏胥)들이 집무를 보았던 이서집단의 중심기구인 질청(作廳, 人吏廳 또는 吏廳이라고도 함), 죄인을 다루는 형리(刑吏)들의 업무공간인 형청(刑廳), 속오군(東伍軍)의 지휘를 위해 파견된 장관(將官)들이 군무를 보던 장관청(將官廳, 將廳이라고도 함), 장교(將校)들이 군병을 소집하고 조련(操鍊) 업무를 보던 군관청(軍官廳), 각종 문서 및 명령을 전달하였던 사령청(使令廳) 등이 확인된다.

마지막은 양곡·세곡·군기 등을 보관하는 창고 공간으로 건물명에 창(倉) 또는 고(庫) 등이 붙는 경우이다. 창고 성격의 건물로는 관아에서 양곡·세곡의 창고로 관리하였던 읍창(邑倉)과 사창(司倉)이 있으며, 이외에도 군기(軍器)의 관리 출납과 병기 재료의 징발·제조 및 중앙군영(中央軍營)·순영(巡營)으로의 상납 등을 하였던 군기고(軍器庫), 대동법 실시 이후 대동미를 관리하였던 대동고(大同庫)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림 7> 19세기 영덕현(盈德縣) 관아의 공간과 건물배치
(1872년 지방도 영덕현 지도, 규장각 奎10512v.4(4))

<그림 7>은 1871년 열읍지도등상령(列邑地圖騰上令)에 따라 1872년에 제작된 지방도 가운데 경상북도 영덕현(盈德縣) 관아의 모습이다. 이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3가지 성격에 따라 구분하면, 첫 번째로 동헌·책방·아사(衙舍)·관청·현사·흡창방(吸唱房) 등의 수령공간, 두 번째로는 객사·향청·이청·형리청(刑吏廳)·군관청·고마청(雇馬廳)·사령방·관노방(官奴房) 등의 행정업무 공간, 마지막으로 사창·읍사창(邑社倉)·진창(賑倉)·별포고(別砲庫)·창고(倉庫)·군기고 등의 창고공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지방관아의 조직과 행정업무 및 기록물 생산·관리는 주로 두 번째 공간인 행정업무 공간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서들의 수령 보고 및 수령의 최종결재 등은 첫 번째 공간인 수령의 집무실인 동헌에서, 각 창고의 물품장부 등은 세 번째인 창고 관련 공간에서 생산·관리되었다.

2. 지방관아의 관속(官屬)과 조직

지방관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데, 좌수(座首)·별감(別監) 등 향사(鄉士)의 자문감찰직에서부터 이서(吏胥)·장교(將校) 등의 하급관리직, 관노(官奴)·고직(庫直) 등의 노비직 등 다양한 신분의 관속들로 구성되었다. 지방관아의 규모는 시기 또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영남 함안군(咸安郡) 및 고성부(固城府)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관아의 규모를 살펴보면 19세기 지방관아에 소속된 관속의 규모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19세기 후반 정선군·자인현·함안군·고성군 등지에서 수령직을 역임한 오횡묵(吳弘默, 1834~1906)의 일기에 의하면,³⁾ 1889년 함안군 관아의 관속이 220명이었던 것을 알 수 있고(함안문화원 2003, 52-54), 고성군 관아의 관속은 153명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성문화원 2007, 43-44). 지방관아에 따라 관속의 규모에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150명 이상인 대규모 기관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1 참조).

지방관아는 이상과 같이 대규모 기관이었기에 조직구조도 상당히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 <표 1>의 1893년 고성부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크게 4개의 직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이에 대해서는 김필동 1999; 배기현 1995; 이훈상 1990 참조), 첫 번째는 좌수(座首)·별감(別監)으로 향청임(鄉廳任)이다. 지역의 나이 많고 덕망있는 선비를 선임하여 수령이 임명하였고, 이들은 수령을 자문하고 향리를 규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두 번째는 육방을 중심으로 한 육방임(六房任)으로 실무행정을 총괄하는 호장(戶長)을 포함하여 이방(吏房)·호방(戶房)·형방(刑房)·병방(兵房)·예방(禮房)·공방(工房)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세 번째는 육방임을 제외한

3) 오횡묵은 자신이 수령으로 있었던 강원도 정선, 경상도 자인·함안·고성 등 각 지역별로 『정선총쇄록』, 『자인총쇄록』, 『함안총쇄록』, 『고성총쇄록』으로 구분하여 업무일지와 개인의 생활일기가 혼합된 형태의 일기를 기록으로 남겼다.

8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제48권 제2호)

기타 색임(其他 色任)으로, 고성부의 경우에는 호적색(戶籍色)·대동색(大同色)·진상색(進上色)·어영색(御營色)·금위색(禁衛色)·관청색(官廳色) 등이 이에 포함된다. 마지막은 이상의 직임에 포함되지 않는 노비직으로 관노(官奴)·관비(官婢)·상직(尙直)·고직(庫直)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각각의 직군과 관아 실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핵심업무에 있어서는 육방임의 결정과 책임이 과중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1893년 경상도 고성부(固城府) 관아의 조직 및 인원

조직(부서)	담당자	인원수	조직(부서)	담당자	인원수
座首	李柄淳	1	作供書員	黃宗台	1
別監	李鎭球, 白南鳳	2	人吏	金秉鎔, 朴成根, 朴鍾根, 朴容希, 朴銀甲, 朴鎭九, 朴應範, 朴泰圭, 林基薪, 文德吳, 朴元局, 丁泰洙, 金相仲, 黃鍾斗, 丁宅樞, 金政俠, 千桂柱, 千就萬, 金炳淳, 丁漢羽, 千載軫	21
戶長	朴文璣	1			
吏房	金璉興	1			
戶房色	金柱攝, 朴尙律	2			
戶籍色	朴鎭國, 金成鏞	2			
首刑吏·司倉色	朴鍾海, 鄭民國	2	通引	金龍斗, 黃炳潤, 千載文, 鄭斗范, 朴南石, 丁極先, 千任連, 千載斗, 朴基石, 金華錫, 金性宗, 金永局, 洪斗日, 黃相玉, 金任榮	15
刑吏	朴鎭旭, 金廷麟	2			
公禮吏	朴必根, 金秉玉	2			
兵房色·水陸歲抄	千世萬, 金泰柱	2	行首軍官	丁甲奇	1
大同色	金相佑, 丁炳淑	2	兵房軍官	金時伯	1
進上色	朴東煥	1	掌務軍官	鄭七龍	1
都書員	丁炳乙	1	軍器監官	黃宗杓, 韓在郁	2
御營色	金天興	1	馬隊別將	李鳳和	1
禁衛色	金秉佑	1	把總	朴允守	1
均役色	朴致玉, 朴亨允	2	執事	鄭七萬	1
禁松色	朴元根	1	戰船代將	朴明極	1
官廳色	丁炳顯	1	房頭使令	金奉出	1
承發	洪在善	1	都使令	崔鶴阜, 曹性完, 河就用, 裴有實, 金又必, 崔致右, 林大成, 卓占後, 金萬祚, 金尙道, 朴次實, 姜學老, 高又八, 金鳳祚	14
書員	東邑內書員	千道一	都軍牢	金今石, 河三實, 鄭又永, 朴云伊, 河必柱	5
	西邑書員	田正度			
	上里書員	金相悅	首奴·尙直	漢淑·道石·在實·日萬·泰鎭·凡龍·雙用·永已·致守·尙俊·九用·基祚·鶴天·永洙·奉業·喜建·栗實·貴東·俠伊·福萬·三祚·金楚·奉祿	23
	下一書員	黃宗林			
	下二書員	金萬玉			
	大范書員	金汶瀚			
	馬巖書員	金鳳錫			
	可洞書員	丁炳洙	首婢	採鳳·柳香·綠珠·春香	4
	九萬書員	金龍斗		各面雇主人等	a
	會賢書員	宋守榮	砲手	洪道元, 鄭昌祿, 金順實, 林守業, 宋學文, 李守贊, 柳大贊, 陳三功, 金學先, 車儉東, 李永石, 金在玉, 金作支, 裴福業	14
	光一書員	千斗連			
	光二書員	金社俠	총인원수		153+a
	道善書員	金泳道			
	宮結書員	朴南國			
柴炭色	黃漢吉	1			
都書記	朴享甲	1			
都訓導·親兵色	姜文述, 朴尙根	2			

〈표 2〉 1842년 경상도 봉화현 관아의 조직 및 부서별 담당자

부 서	육방임 六房任							기타 색임 其他 色任										
	호장 戶長	이방 吏房	호방 戶房	예방 禮房	병방 兵房	형방 刑房	공방 工房	승발 承發	동창 東倉	속오 束伍	군기 軍器	의생 醫生	물선 物膳	관청 官廳	중기 重記	통인 通引	도서원 都書員	대동 大同
담 당 자	戶長色	吏房色	戶房色	禮房色	兵房色	刑房色	工房色	承發	東倉色	束伍色	軍器色	醫生色	物膳色	官廳色	重記色	通引	都書員	大同色
	尹相任	李枝興	全時翁 吳致祥	尹翺德 全億允	朴道淳 金昌淵	朴曾發 鄭孟鄰	金百源 李富俊	金百源 李富俊	吳致祥	金龜獻	李富俊	金龜獻	馬應臣	鄭處中	金順福 鄭仲鄰	朴長春 鄭麟慶	未詳	未詳

조선시대 지방관아의 중기(重記) 자료를 살펴보면, 각 조직별·부서별 담당 물목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해당 지방관아의 조직구조와 조직별 담당자와 해당 기록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현존하는 영남지역 중기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로 추정되는 1842년 봉화현(奉化縣) 중기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1842년 봉화현 중기에 의하면, 봉화현은 육방임에 해당되는 호장색, 이방색, 호방색, 예방색, 병방색, 형방색, 공방색 등의 직임이 모두 존재하는 구조로 조직되었고, 기타 색임의 경우 승발(承發), 동창색(東倉色), 속오색(束伍色), 군기색(軍器色), 의생색(醫生色), 물선색(物膳色), 관청색(官廳色), 중기색(重記色), 통인(通引), 도서원(都書員), 대동색(大同色) 등의 부서와 담당자를 둔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영남의 타지역 현존 중기들과 비교해보면, 지방관아에 따라 중기에 나타나는 조직·부서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이는 해당 부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부서는 있으나 담당 물목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Ⅲ. 조직별 업무와 기록물

지방관아의 조직별 업무에 대해서는 1842년 봉화현을 사례로 호장을 포함한 육방임의 업무와 기타 색임의 업무로 구분하여 조직별 업무와 해당 조직의 대표적 기록물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4) 1842년 봉화현 중기, 1871년 영천군 중기, 1882년 자인현 중기, 1886년 합천군 중기, 1887년 예천군 중기, 1889년 현풍현 중기 등 6종의 중기에서 확인되는 관아 조직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戶長	吏房	戶房	禮房	兵房	刑房	工房	戶籍色	通引	都書員	軍器	廐馬	官廳	藥局·醫生	大同	倉色
봉화(1842)	○	○	○	○	○	○	○		○	○	○		○	○	○	○
영천(1871)	○		○	○	○	○	○		○	○	○	○	○	○		
자인(1882)	○			○	○	○	○	○	○	○	○		○	○		○
합천(1886)	○		○	○		○	○	○		○	○		○		○	○
예천(1887)	○			○	○	○	○	○				○	○			○
현풍(1889)	○		○	○	○	○	○		○		○		○		○	

1. 육방임(六房任)의 업무와 기록물

우선 실무행정을 총괄하는 호장은 ‘민호지장(民戶之長)’으로 조선전기에는 아전의 최상위 직임이었으나, 조선후기에는 육방(六房)·색임(色任)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호장의 역할은 약화되었다. 그 업무로는 민호(民戶) 총괄, 관노비(官奴婢) 관장, 경내 호전(戶錢)의 수봉(收捧)과 상납(上納), 시탄·거탄·벗짚의 진배 등 관아에서 그다지 비중이 크지 않은 업무를 관장하였다.⁵⁾ 그러나 실제 업무와는 관계없이 명목상으로는 지방관아의 총괄자이기에 중기(重記)의 기술에 있어 가장 먼저 서술되는 항목이 ‘호장’이었다. 봉화현의 경우 호장이 관리하는 대표적인 기록물로는 수령의 명단을 기록한 「읍선생안(邑先生案)」, 관노비의 명단을 기록한 「노비안(奴婢案)」 등이 있다.

〈표 3〉 1842년 봉화현 관아 육방임(六房任)의 조직 및 대표적 기록물

부서	호장 戶長	이방 吏房	호방 戶房	예방 禮房	병방 兵房	형방 刑房	공방 工房
	戶長色	吏房色	戶房色	禮房色	兵房色	刑房色	工房色
담당자	尹相任	李枝興	全時翁 吳致祥	尹彝德 全億允	朴道淳 金昌淵	朴曾發 鄭孟鄰	金百源 李富俊
대표 관리 기록물	邑先生案 奴婢案	人吏官案 人吏保人案	戶籍大帳 銀店文書冊軸	巡營陪持節目	良役冊 軍丁查正冊	邸吏債錢節目 河東掛書文案	松禁節目

이방(吏房)은 실제 육방의 수석(首席)으로 호장과 더불어 읍사(邑事)를 총괄하는 가장 핵심적인 직책이다. 특히 18세기 중반 이후 질청[作廳]에 대한 향청(鄉廳)의 견제 기능이 약화되면서 이방의 읍사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이방은 인리(人吏)·통인(通引)·사령(使令) 등의 아전과 관속들에 대한 고과인사권을 가지며 관아의 모든 업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⁶⁾ 때문에 이방은 업무와 관련해서 아전과 관속들의 명단인 「인리관안(人吏官案)」, 「인리보인안(人吏保人案)」 등을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호방(戶房)의 가장 주요 업무는 호구(戶口) 총수를 파악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사 상태, 강수량, 제방·독의 상태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는 일과 시장 및 물가에 대해 보고하는 것도 호방의 업무 중 하나였다.⁷⁾ 때문에 19세기 이후 지역 시장의 발달과 화폐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관아에서 호방의 위상이 높아졌다. 봉화현 중기에서 호방이 관리하였던 대표적인 기록

5) “以公兄 總察民戶 官奴婢出入臧否 次知事” 『구례현읍지』, 「各校吏所掌」; “境內戶錢 收捧上納” 『任實郡事例定錄』; “掌柴炬炭進排 領官奴婢等事” 『고창현읍지』, 「各校吏所掌」.

6) “以公兄總察邑事 人吏·通引·使令出入臧否次知事” 『구례현읍지』, 「各校吏所掌」; “掌人吏·貢生·使令 各項邑事都次知” 『정읍현읍사례』.

7) “戶口總數及農桑堤堰次知事” 『구례현읍지』; “掌農形雨澤市直修報 及堤堰修築” 『고창현읍지』.

물로 호구총수의 파악에 대한 결과물인 「호적대장(戶籍大帳)」과 시장물가와 관련되는 「은점 문서책(銀店文書冊)」이 포함되었던 것은 경제적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당시의 정황과 호방 업무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실례라 할 수 있다.

예방(禮房)의 중요 업무는 각종 제향(祭享), 예의(禮儀), 학교(學校)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다. 이외에 추천된 교임(校任)·재임(齋任)·훈장(訓長)을 차출하는 업무, 장악원(掌樂院)의 악공보(樂工保), 순영(巡營) 소속의 배지보(陪持保),⁸⁾ 호조에 상납하는 무세포(巫稅布)를 관장하는 업무, 산송도형(山訟圖形)을 조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⁹⁾ 봉화현 호방의 대표적인 기록물 중 눈에 띄는 것으로는 순영 소속 배지보를 관장하기 위해 이에 대한 절목을 작성한 「순영배지절목(巡營陪持節目)」이 있다.

다음으로 병방(兵房)은 각종 군병(軍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군병의 결원이 있을 경우 결원을 채우는 업무, 병조에 군포(軍布)·군전(軍錢)을 상납하는 업무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병조 충익위(忠翊衛)·균역청(均役廳) 등에 기병(騎兵)·금직(禁直)·복직(祿直)·교군(驍軍) 등의 군정을 거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¹⁰⁾ 따라서 병방에서 관리한 기록물도 이와 관련되어 군정·균역을 조사한 장부류인 「군정사정책(軍丁査正冊)」과 「양역책(良役冊)」이 병방의 대표적인 기록물로 생산되었다.

형방(刑房)은 민사소송[詞訟], 형옥(刑獄)·형구(形具), 죄수(罪囚)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소송 관련 서류 업무[民狀], 상관에게 보고하는 업무[告課], 범인심문 업무[推闕], 죄인을 유배 보내거나 가두는 업무, 우금(牛禁)·주금(酒禁)·송금(松禁) 관련 업무 등이 이에 해당된다.¹¹⁾ 봉화현 중기에 수록된 형방의 대표적인 기록물로는 「하동괘서문안(河東掛書文案)」을 들 수 있다. 이는 19세기 민심을 선동하기 위해 흰 무명예 선동의 글을 써 하동 두치장(斗峙場)에 내걸었던 하동 괘서(掛書) 사건의 전말을 기록해두었던 문안(文案)으로 추정된다. 기록물류는 아니지만 형방에서 관리하였던 서책류도 확인되는데, 대표적인 서책으로는 1785년 새로운 통합 법전인 『대전통편(大典通編)』 등의 법전 및 형구의 규격과 품체를 규정한 『흙홀전칙(欽恤典則)』 등이 소장되었다.

공방(工房)은 육방임 중 가장 말석직으로 공장(工匠)을 관장하고, 지물(紙物)·목물(木物)을 진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공조(工曹)·순영(巡營)에 납부하는 장인보전(匠人保錢) 및 승번전(僧番錢)의 상납 업무를 전담하였다. 또한 닥나무, 뽕나무, 옷나무 등을 재배하는 업무,

8) 陪持保는 지방 관아의 進上·狀啓를 가지고 서울에 가는 일을 맡은 保人을 말함

9) “總察祭衣學校 各進上次知事” 『구례현읍지』; “校任·齋任及各面訓長, 隨薦稟差, 而凡係禮儀, 全管檢飭” 『任實郡事例定錄』; “掌掌樂院樂工保 戶曹納巫稅布 巡營納陪持保·工人·六角 山訟圖形摘奸” 『정읍현읍사례』.

10) “各軍兵次知事” 『구례현읍지』; “掌各軍兵填代 及都捧軍錢 兵曹納騎步兵錢木上納等事” 『고창현읍지』; “掌兵曹忠翊衛 兵營騎兵 均役廳選武軍官 京上步兵 換作騎兵 禁狀直 各軍丁付標官·驍軍舉行” 『정읍현읍사례』.

11) “詞訟·形具·罪囚 次知事” 『구례현읍지』; “詞訟·刑獄 及大小禁斷, 主管舉行” 『임실군사례정록』; “典掌欽恤舉行 詞訟等事” 『고창현읍지』; “掌民狀告課推闕聽令 各樣刑具定配罪人 營囚罪人 牛酒松三禁” 『정읍현읍사례』.

도로·교량·막사 등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업무도 담당하였다.¹²⁾ 봉화현 중기의 ‘공방’ 항목에는 공방에서 담당하는 각종 건물 및 물품 중심으로 수록되었고, 기록물 종류로는 「송금절목(松禁節目)」 단 한 건만이 수록되어 있다. 수록된 송금절목은 나무 재배 및 목물 업무와 관련하여 공방에서 관리하였던 기록물임을 알 수 있다.

2. 기타 색임(其他 色任)의 업무와 기록물

〈표 4〉 1842년 봉화현 관아 기타 색임(其他 色任)의 조직 및 대표적 기록물

부서	승발 承發	도서원 都書員	관청 官廳	대동 大同	군기 軍器	속오 束伍	동창 東倉	통인 通引	의생 醫生
담당자	承發 金百源 李富俊	都書員 未詳	官廳色 鄭處中	大同色 未詳	軍器色 李富俊	束伍色 金龜獻	東倉色 吳致祥	通引 朴長春 鄭麟慶	醫生色 金龜獻
대표 관리 기록물	—	火田定式 件記	(食材料) 記付	—	—	—	—	—	—

기타 색임의 경우에는 육방에 비해 업무의 중요도나 비중이 낮고 생산·관리되었던 기록물도 육방에 비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중기에 기타 색임의 생산·관리 기록물에 대한 내용이 많지 않은 것이 이를 반증한다. 따라서 기타 색임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무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승발(承發)은 조선전기에 장교(將校)였다가 조선후기가 되며 승발로 지위가 하락하였으나, 지방관아의 업무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승발의 주요 업무로는 감영·순영과의 관문(關文)·감결(甘結) 발송, 면주인(面主人)에게 문서·장부의 발송 등 경(京)·영(營)·읍(邑)·면(面) 사이에 주고받던 문서의 발송 업무를 담당하였다.¹³⁾

도서원(都書員)의 직책은 그 역할이 미비한 가리직(假吏職)이었으나, 조선후기 토지 중심의 부세 징수로 변화함에 따라 19세기 이후에는 중요 직책으로 부상하였다. 각면(各面)의 서원(書員)이 조사한 해당 면 전답의 총 결수[結總]와 그에 따른 조세를 기록하면, 도서원이 결총(結總) 및 결세(結稅)를 기록한 전체 장부[結簿]를 총괄하고, 전체 결세의 상납을 담당하였다.¹⁴⁾ 봉화현 중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도서원의 기록물로는 각면의 토지를 조사한 「각

12) “察飭工匠·公用紙地 次知事” 『구례현읍지』; “掌工曹匠人保錢 巡營匠人保錢 僧番錢 別卜定羔鬚 各色匠人 次知舉行” 『정읍현읍사례』; “掌紙木物進排 及楮竹桑漆等事” 『고창현읍지』; “道路橋梁, 申飭修治, 而烏院·葛潭·雲岩三處監官, 差出舉行. 各面里家, 前幕·穹弩·陷奔, 修治等節, 差出識察, 申飭舉行” 『임실군사례정목』.

13) “各營門 關甘分發次知事” 『구례현읍지』; “掌各項文簿 分撥各面主人” 『정읍현읍사례』; “掌京營邑各項文牒定持者發送事” 『고창현읍지』.

14) “田畝結總及各樣米·太出稅事” 『구례현읍지』; “掌察結簿出秩等事” 『고창현읍지』.

면행심(各面行審)」 34권과 「각면화전정식발기[各面火田定式件記]」가 대표적이다.

다음으로 관청색(官廳色)은 관아 주방[官廚]에 물품을 진배하고 관아의 아침·저녁식사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¹⁵⁾ 『목민심서』에 의하면 관부(官府)의 돈·곡식·물품 등을 쓰고 남은 재물을 장부에 기재한 것을 「기부(記付)」라고 하였는데,¹⁶⁾ 중기 자료에 의하면 관청(官廳)에서는 식재료별로 각각의 기부(記付)를 작성하여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대동색(大同色)은 대동법 실시 이후 대동전(大同錢)과 대동미(大同米) 상납 업무를 담당하였고,¹⁷⁾ 군기색(軍器色)은 조선후기 무명·곡식·화살·종이 등을 바쳐 군역을 면제받았던 군기보(軍器保)·지물보(紙物保)·사인보(矢人保) 등의 보인(保人)을 담당하였다.¹⁸⁾ 속오색(束伍色)은 속오군 관련 업무를 전담하였는데, 봄·가을에 속오군을 불러 모아 점고하는 일[聚點], 속오군·아병(牙兵)이 쓸 군수물자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¹⁹⁾ 조선후기 환곡제도가 부세 및 대민수취를 위한 제도로 변화하면서 지방관아에 이를 담당하는 색리(色吏)의 수적 증가를 야기시켰는데, 창색(倉色)의 출현도 이와 관련된다. 즉 환곡의 부세화와 고리대 제도로 인해 지방관아에 창색과 고색(庫色)이 증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창색은 지역민에게 대여한 곡식을 회수하는 업무 및 그 내역을 기록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²⁰⁾ 통인(通引)은 수령의 가까이에서 인장을 찍거나 시중을 드는 업무를 하였고,²¹⁾ 의생(醫生)은 관부에 바치는 약재를 원가로 받아 제조·납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²²⁾

IV. 지방관아 기록물의 종류와 형태

봉화현, 영천군, 자인현, 합천군, 예천군, 현풍현 등의 영남지역 중기 6종을 대상으로 지역별·조직별 생산·관리된 기록물의 종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각 중기의 기재 물목 가운데 기록물로 추정되는 사례를 추출하고, 기록물의 명칭을 통해 그 형태를 유추해보고자 한다. 백선희의 연구(2007)에서는 『경국대전』에 사용된 공문서의 명칭으로 문(文), 문서(文書), 문자(文字), 문기(文記)·문계(文契)·문권(文券), 적(籍), 부(簿), 안(案) 등을 소개한 바 있는데, 영남지역

15) “掌官廚支供舉行” 『고창현읍지』; “官需米及官廚進排次知事” 『구례현읍지』; “掌朝夕支供進排” 『정읍현읍사례』.

16) “官府所傳錢穀諸物厥有都籍名曰重記 遞歸之時畧以用餘留載重記此之謂記付也” 『牧民心書』 권1, 「律己 六條」 ‘節用’.

17) “掌大同米上納 及儲置米夫刷價用下等事” 『고창현읍지』; “大同錢·木上納次知事” 『구례현읍지』.

18) “掌軍器紙物矢人保 次知舉行” 『정읍현읍사례』.

19) “束伍牙兵軍 次知事” 『구례현읍지』; “掌束伍軍兵春秋聚點 及將官試射放劃事” 『고창현읍지』; “掌束伍軍巡營納牙兵軍物保次知舉行” 『정읍현읍사례』.

20) “還餉各穀次知事” 『구례현읍지』; “掌米租荳還糶糶文書” 『고창현읍지』.

21) “掌印貼隨廳等事” 『고창현읍지』.

22) “掌官家藥材受本價製納” 『정읍현읍사례』.

중기 자료 6종을 분석한 결과, 기록물 명칭에 사용된 기록물의 종류는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표 5> 19세기 영남지역 중기 6종에 수록된 기록물 종류와 종수

	節目	案	綸音	大帳	謄錄	事目	所志類 (原情·相訟·所志)	完文	其他 (미분류)	전체
봉화현(1842)	3	8	—	2	—	—	—	—	9	22
영천군(1871)	8	11	2	2	—	—	1	—	8	32
자인현(1882)	33	9	9	2	3	2	—	3	22	83
합천군(1886)	6	—	2	3	—	2	5	—	8	26
예천군(1887)	3	—	5	—	—	1	—	—	3	12
현풍현(1889)	8	6	—	2	4	1	—	—	21	42
합 계	61	34	18	11	7	6	6	3	71	217

서책류를 제외한 기록류는 전체 217건으로 확인되었다. 기록물의 종류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례는 전체 70% 정도로 나타났고, 나머지 30% 정도는 중기에 기록된 명칭만으로는 기록물 유형을 분류하기 어려운 사례(71건)로, 본 논문의 기록물 종류별 분류에서 제외하였다.²³⁾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기록물의 유형은 절목(節目)과 안(案)으로 전체 40% 이상을 차지하였고, 이외에는 윤음(綸音), 대장(大帳), 등록(謄錄), 사목(事目), 소지류(所志類), 완문(完文), 건기(件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윤음은 국왕이 신민(臣民)에게 내리는 명령이자 임금의 생각과 말씀이며, 이는 인쇄된 형태로 배포되기 때문에 서책류 형태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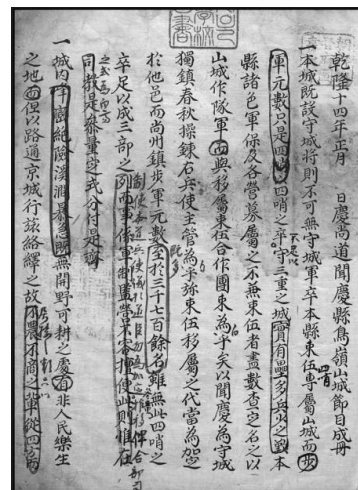
윤음을 제외한 절목, 안, 대장, 등록, 사목, 소지류, 완문을 성격이 비슷한 유형으로 묶어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규칙의 조목을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유사한 성격인 절목(節目)과 사목(事目)을 지방관아의 주요 기록물로 다루었고, 두 번째는 인명·토지·물품 등의 정보를 기술한 안(案)과 대장(大帳)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 번째는 지방관아와 개인·단체 사이에 접수·발급되었던 기록물인 완문(完文)과 소지류(所志類)이다. 완문은 관아가 개인·단체의 사실·특권을 인정하여 발급하는 문서이며, 소지류는 개인·단체가 관아에 소송을 제기할 때 작성하여 관에 접수하는 문서로 원정(原情), 상송(相訟), 소지(所志) 등의 종류가 있다. 마지막은 지방관아 기록물의 편리한 관리와 보존을 위해 생산된 등록(謄錄)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기 6종에 나타나는 기록물의 명칭을 중심으로 크게 절목·사목, 안·대장, 완문·소지류, 등록

23) 중기 6종에서 기록물 유형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사례로는 ‘各面行審(參拾肆卷)’(봉화 都書員), ‘巫女出秩冊(壹卷)’(봉화 戶房), ‘藥價折價冊(壹)’(영천 藥局), ‘八夫詳定都目(參卷)’(자인 戶長), ‘田制遵守冊(一卷)’(합천 都書員)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미분류된 기록물은 제외하고 유형화하였음을 밝히며, 미분류 기록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각 기록물 유형의 형태를 갖춘 실물을 규장각, 장서각,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찾아 예시하였다.

1. 절목(節目)·사목(事目)

‘절목’은 규칙의 조목·조항의 뜻을 의미하는데, 중기(重記)에 기록된 물목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록물의 유형이다. 절목은 규칙·규정·규율의 성격을 가진 기록물이며, 용어 그대로 조목·조항·항목을 일일이 나열하는 형식을 갖는다. 절목 외에도 사목(事目)이라는 명칭도 사용되었는데, 이 또한 항목·조목을 나열하는 방식이라는 점, 특정 규율·규정의 성격을 갖는 점 등에서 절목과 유사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절목과 사목은 업무에 수시로 필요한 규정·규율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업무 활용과 참고를 위해 해당부서에서 비치해야 하는 비치기록물의 성격을 갖는다.



〈그림 8〉 책자형 사목(事目)의 사례
[左: 加髡申禁事目(丁酉字), 右: 均役廳事目(戊申字)]

〈그림 9〉 책자형 절목(節目)의 사례
[閔慶縣烏嶺山城節目]

실제 중기에서도 절목과 사목이 구분없이 사용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1871년 영천군 중기의 호방(戶房) 항목에 기록된 「균역절목(均役節目)」은 1887년 예천군 중기의 병방(兵房) 항목에 수록된 「균청사목책(均廳事目冊)」과 동일한 자료로 추정된다. 이는 1752년 균역법(均役法)의 시행세칙을 무신자(戊申字)로 인쇄한 「균역청사목(均役廳事目)」인 것으로 보인다(〈그림 8〉의 左 참조). 또한 1871년 영천군 중기의 예방(禮房) 항목에 기재된 「가체용금절목(加髡用禁節目)」은 1886년 함천군 중기의 예방 항목에 기록된 「가체신금사목(加髡申禁

事目)」과 동일 자료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1788년 조선 여인들의 가체를 금하는 규정을 정유자(丁酉字)로 인쇄한 「가체신금사목(加髭申禁事目)」으로 추정된다(<그림 8>의 右 참조). 절목·사목은 <그림 8>과 같이 인쇄된 형태도 있으나, 기록물명에 해당 지역의 사건과 관련되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현존 고서목록에서 찾을 수 없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도 있어 필사된 형태가 상당수일 것으로 추측된다. 예를 들면, 자인현 중기의 통인(通引) 항목에 수록된 「대흥사부정방급절목(大興寺釜鼎防給節目)」의 경우 대흥사(大興寺)에 술을 방급(防給)하는 것과 관련된 절목으로, 문경(聞慶)의 조령산성(鳥嶺山城) 관련 절목(<그림 9>)과는 그 내용이 상이하지만, 해당 지역명을 특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림 9>와 같이 필사된 형태를 띠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록물의 명칭에서 ‘절목책(節目冊)’ 또는 ‘사목책(事目冊)’이란 표현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는 절목·사목의 형태가 책자임을 강조한 표현이다. 대부분 책자 형태이지만, 간혹 낱장을 이어붙인 권자(卷子) 형태의 경우에도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권자 형태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종이를 이어붙인 사목(事目)의 사례 [戶籍事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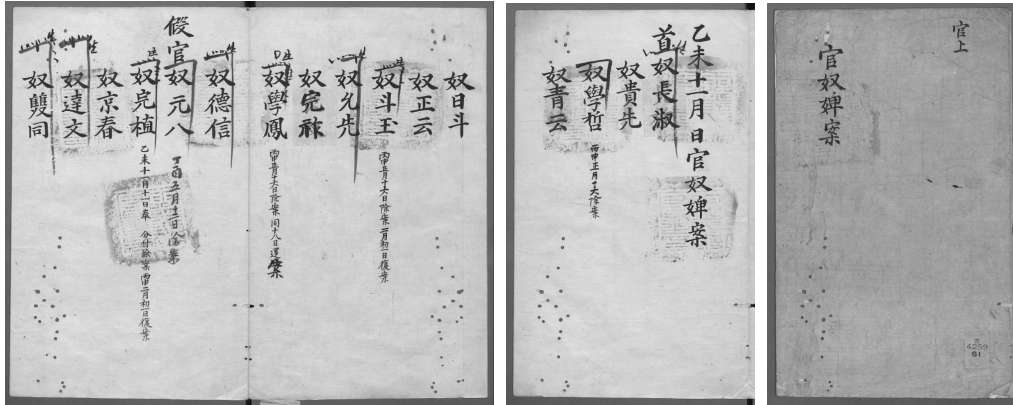
영남지역 중기 6종에 기재되어 있는 절목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절목을 관리하였던 부서로는 호장, 호방, 예방, 형방, 병방, 공방, 고마색, 민고색, 관청색, 창색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절목의 종류도 균역청 절목[均役節目], 가체(加髭) 사용 금지 절목[加髭用禁節目], 송금(松禁)에 관한 절목[松禁節目], 민고(民庫)에 관한 절목[民庫節目], 꿩·닭에 관한 절목[雉鷄節目], 향교서책에 관한 절목[鄉校書冊節目], 이운재(理韻齋) 전답에 관한 절목[理韻齋田畓節目], 환곡 폐단을 바로잡는 절목[還弊矯揀節目] 등 다양한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표 6> 참조).

〈표 6〉 중기에 나타나는 절목(節目)·사목(事目)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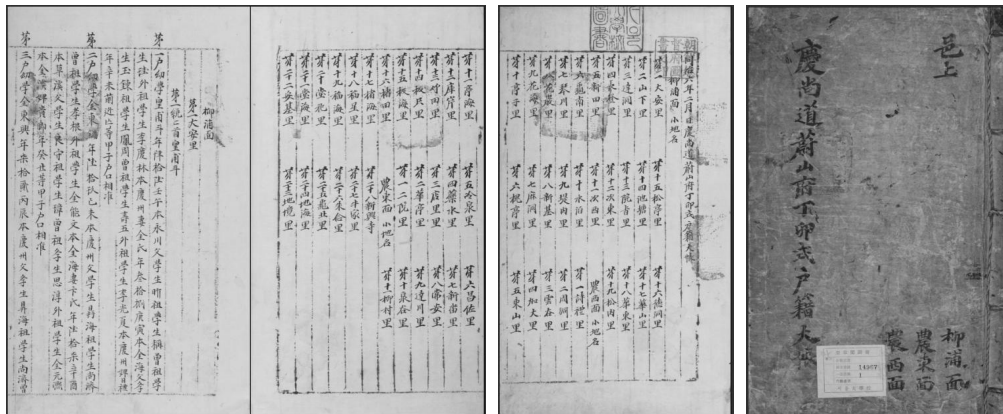
	조직	기록물명 (괄호 안은 수록된 중기의 작성 연도와 지방관아명)
節目(冊)	戶長	三店各役厘正節目, 官屯木花代錢節目(1883 자인)
	戶房	均役節目(1871 영천), 均役廳新頒節目(1889 현풍)
	禮房	巡營陪持節目冊(1842 봉화), 加髡用禁節目(1871 영천), 書冊節目冊(1889 현풍)
	刑房	邸吏債錢節目(1842 봉화), 筵稟節目冊(1887 예천)
	兵房	涎逢新節目(1871 영천), 路文節目冊(1887 예천)
	工房	松禁節目(1842 봉화)
	雇馬色	刷馬節目冊(1871 영천)
	雇稅色	矯揉節目, 通引房立馬學硯節目, 補役矯弊節目(1883 자인)
	民庫色	民庫舊節目, 民庫新節目, 巡營新節目(1886 합천)
	官廳色	矯揉節目(1883 자인)
	進上膊儀色	三店厘正節目(1883 자인)
	倉色	糶糶節目, 斗分節目, 還穀稟益節目(1883 자인)
	砲色	三軍府成貼砲料設行節目(1883 자인)
	通引	紙大同節目, 雉鷄節目冊, 藥節目(1889 현풍), 詳定節目, 糶糶節目, 雇廳節目, 筵稟節目, 柴炭草復戶節目, 倉穀斗分節目, 三店厘正節目, 大興寺使臣求請紙防給節目, 南草廬使臣求請節目, 理韻齋田畝節目, 補蔘節目, 鄉校書冊節目, 大興寺釜鼎防給節目, 邸弊厘正節目, 獨谷店役代錢節目(1883 자인)
事目(冊)	醫生色	進上節目(1883 자인)
	穀摠	還弊矯揉節目冊(1889 현풍)
	禮房	山訟事日冊(1889 현풍), 加髡中禁事日, 義僧番錢給代事日(1886 합천)
	兵房	均廳事日冊(1887 예천), 義僧番錢半減給代事日(1883 자인)
	通引	啓下事日(1883 자인)

2. 안(案)·대장(大帳)

안(案)의 형태는 지역별 또는 부서조직별로 고르게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호장(戶長)에서는 「관둔전안(官屯田案)」·「노비안(奴婢案)」·「읍선생안(邑先生案)」, 이방(吏房)에서는 「인리관안(人吏官案)」, 군기(軍器)에서는 「별군관안(別軍官案)」, 포색(砲色) 항목에서는 「포군안(砲軍案)」, 통인(通引) 항목에서는 「각면주인안(各面主人案)」, 약국(藥局) 항목에서는 「진상약한안(進上藥汗案)」 등이 작성되어 관리되었다. 지방관아의 각 부서에서 관리하였던 안(案)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노비안, 읍선생안, 인리관안, 별군관안, 포군안 등과 같이 사람의 인명과 기타 정보를 기록하거나 관둔전안, 진상약한안 등과 같이 토지·물품 정보를 기록하였다는 점이다(〈그림 11〉 참조). 즉, 사람의 인명과 기타 정보, 토지·물품의 정보를 기록한 기록물인 경우 ‘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안’이라는 기록물은 사람이나 재물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며, 일정기간마다 현황과악 및 변동사항 확인, 개인 발급을 위한 준거 자료 등에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1〉 안(案)의 사례 [官奴婢案 (규장각 古 4259-61)]



〈그림 12〉 대장(大帳)의 사례 [高宗四年丁卯蔚山戶籍大帳 (奎14967)]

인명·토지명·물명 등의 정보를 담고 있어 부서에서 업무 참고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치 기록물의 또 다른 유형으로는 ‘대장(大帳)’이 있다(〈그림 12〉 참조). 봉화현 중기의 호방 항목에 수록된 ‘각식년호적대장(各式年戶籍大帳)’, 현풍현 중기의 호방 항목에 수록된 ‘양전대장(量田大帳)’ 등이 이에 해당된다. 현존하는 ‘안’과 ‘대장’의 장수와 글자를 비교해 보면 ‘대장’은 ‘안’에 수록되는 정보에 비해 상당히 많은 양의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외형에 있어서도 책자의 규모에 상당한 크기를 보인다.

〈표 7〉 규장각 소장 案과 大帳 현존본 사례의 형태적 크기 및 분량 비교

	현존본 사례	크기	분량
案	官奴婢案 (古 4259-61)	33.5×19.5cm	4장
	人吏通引官案 (奎 27465)	34.7×17.1cm	6장
大帳	高宗四年丁卯蔚山戶籍大帳 (奎 14967)	64.5×53.0cm	155장
	全羅左道任實縣已改量陳大帳 (奎 15027)	59.0×49.0cm	28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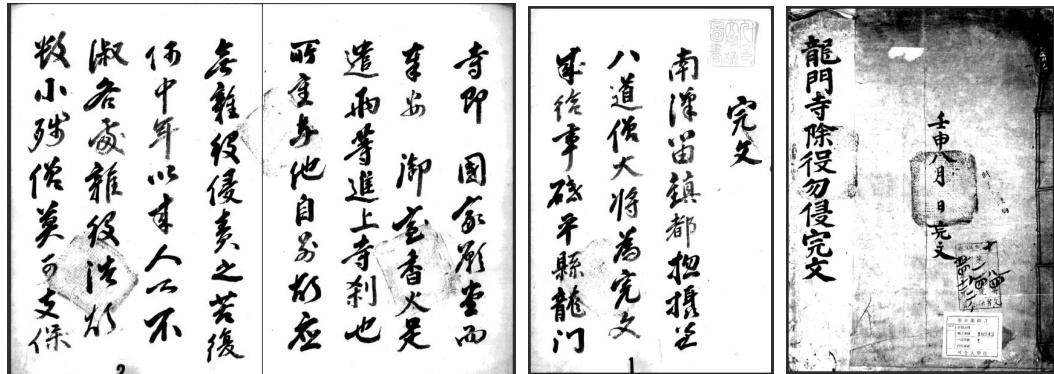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장각 소장 ‘안(案)’과 ‘대장(大帳)’의 사례를 비교해본 결과 ‘안’의 경우 4~6장의 분량에 세로 길이가 30~40cm인 반면, ‘대장’의 경우 150장 이상의 분량에 50~70cm 사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민의 호구 및 토지를 조사하여 기록한 경우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정보를 담아야 하고, 종이의 면적을 최대한 넓게 활용하기 위해 ‘안’의 크기보다 2배에 가까운 크기를 갖추었다. 이러한 이유로 기록물의 명칭을 큰 장부라는 의미로 ‘대장’이라 명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 각 부서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수시로 참고한 비치기록물의 성격으로 ‘안’과 ‘대장’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영남지역 중기 6종에 수록된 사례를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표 8> 중기에 나타나는 안(案)·대장(大帳)의 사례

	조직	기록물명 (괄호 안은 수록된 중기의 작성 연도와 지방관아명)
案	戶長	官屯田案, 奴婢案, 邑先生案(1842 봉화), 官屯田舊案(1871 영천)
	吏房	人吏官案, 人吏保人案(1842 봉화)
	刑房	河東掛書文案(1842 봉화)
	工房	邑先生案(1889 현풍)
	軍器	別軍官案(1883 자인)
	砲色	砲軍案(1883 자인)
	通引	諸將校各色匠案, 人吏案, 官奴案, 各面主人案, 囚徒案(1883 자인)
	藥局	進上藥汗案(1871 영천)
大帳	戶房	各式年戶籍大帳(1842 봉화), 丙午式戶籍大帳, 量田大帳, 庚子改量大帳(1889 현풍)
	都書員	鉄券大帳(1842 봉화), 甲戌量大帳(1886 합천)

3. 완문(完文)·소지류(所志類)

지방관아에서 생산·관리되었던 또 다른 기록물의 형태로 완문(完文)이 있다. 완문은 향교·서원·문중·개인 등에게 어떤 사실이나 권리, 특권을 인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아에서 발급하였던 문서이며, 관아에서는 발급해준 문서의 내용을 별도로 베껴 관리·보관하였다. 19세기 영남지역 중기에는 완문의 사례가 많지 않지만, 1883년 자인현 중기에서 3건의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자인현 포색(砲色) 부서에서 관리하였던 포답(砲畓)에 관한 완문[砲畓字號卜數完文], 통인이 관리하였던 조포사 석송암(石松菴)의 특권 인정 완문[移屬造泡寺石松菴完文], 반용사(盤龍寺)의 특권 인정 완문[盤龍寺移屬完文]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관아에서 발급되는 완문의 형태는 대부분 <그림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자 형태이다.



〈그림 13〉 완문(完文)의 사례 [龍門寺除役勿侵完文(奎18943)]

지방관아에서 관리하였던 또 다른 형태의 기록물로 소지(所志)와 원정(原情)을 들 수 있다. 소지와 원정은 특정인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밝히기 위해 관에 올리는 탄원서인데, 탄원서를 올리는 특정인이 자신이 속한 지방관아에 올리는 경우 ‘소지’라 하였고, 국왕 또는 타 지역 지방관(수령·관찰사·유수 등)에 올리는 경우 ‘원정’이라 하였다. 이들 탄원서가 관아에 접수되면, 해당 문서에 지방관의 판결문을 기재하여 당사자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기록물 원본은 탄원서를 올린 당사자에게 되돌아가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때문에 지방관아에서는 소지 및 원정의 내용을 별도의 책자에 따로 옮겨 적어 관리·보존하였다.

영남지역 중기에서 기록된 소지의 사례로는 1871년 영천군 중기의 고마색(雇馬色) 관리 기록물 가운데 내동평(內東坪) 조귀만(趙貴萬)이 올린 소지[內東坪趙貴萬贖公參斗落所志]만이 확인된다. 반면 원정의 사례는 1889년 현풍현 중기에서 4건이 확인되는데, 충청도 진천곽재중(郭在中)이 올린 전답 관련 상송 원정[忠淸道鎭川郭在中田畓相訟原情封], 성주 강몽선(姜夢先)이 올린 원정[星州姜夢先原情封], 교노(校奴) 박만재(朴萬才)가 올린 원정[校奴朴萬才原情封], 합천 진덕범(陳德凡)이 올린 원정[陝川陳德凡原情封] 등이 통인에 의해 관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기에 나타나는 완문·소지·원정의 사례는 <표 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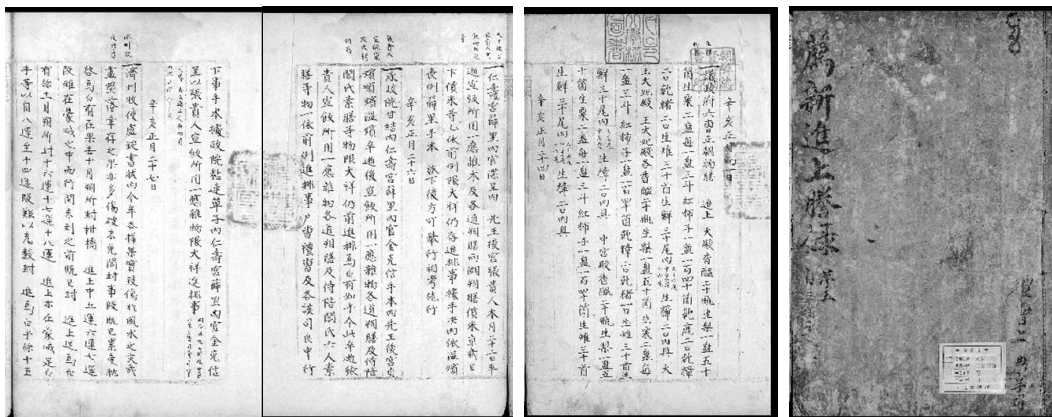
〈표 9〉 중기에 나타나는 완문(完文)·소지류(所志類)의 사례

	조직	기록물명 (괄호 안은 수록된 중기의 작성 연도와 지방관아명)
完文	砲色	砲奮字號卜數完文(1883 자인)
	通引	移屬造砲寺石松菴完文, 盤龍寺移屬完文(1883 자인)
所志類	雇馬色	內東坪趙貴萬贖公參斗落所志(1871 영천)
	通引	忠淸道鎭川郭在中田畓相訟原情封, 星州姜夢先原情封, 校奴朴萬才原情封, 陝川陳德凡原情封(1889 현풍)

4. 등록(謄錄)

마지막으로 소개할 지방관아의 기록물 종류로 등록(謄錄)이 있다. 등록은 넓은 의미에서 문서를 베껴 기록하는 등서의 개념으로, 조선시대 관아에서 기록물 관리·보존을 위한 방안으로 등록이 제작되었다. 이러한 등록은 이후 참고자료로 이용되기도 하였고, 영구보존문서의 보존용으로 생산되기도 하였다. 현존하는 등록은 크게 ① 각 관청에서 제작한 관아일지류 형식, ② 단위과제별 관련 원본 공문서를 베껴 찬집한 형식, ③ 단 일 사안에 대한 보고서 및 자료집 형식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이형중 2012).

19세기 영남지역 중기에 기재되어 있는 등록의 종류를 살펴보면, 1889년 현풍현 중기의 경우 호방에서 「우준수등록책(右遵守謄錄冊)」, 「양전등록책(量田謄錄冊)」을 관리하였고, 예방에서 을축년 이후의 내용을 새로 기록한 등록[乙丑以後改磨鍊謄錄冊], 갑인년 이후 진사 합격자를 기록한 등록[甲寅以後進士謄錄冊] 등이 관리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1883년 자인현 중기의 경우에는 진상부의색(進上賻儀色)에서 관리되었던 기록물로 「각색진상등록(各色進上謄錄)」이 수록되어 있다. 등록의 대표적인 형태는 <그림 14>와 같이 책자 형태를 띠고 있으며, 영남지역 중기 6종에 나타나는 등록의 종류는 <표 10>과 같다.



<그림 14> 등록(謄錄)의 사례 [薦新進上謄錄(奎12913-v.1-7)]

<표 10> 중기에 나타나는 등록(謄錄)의 사례

	조직	기록물명 (괄호 안은 수록된 중기의 작성 연도와 지방관아명)
謄錄(冊)	戶房	右遵守謄錄冊, 量田謄錄冊, (1889 현풍)
	禮房	乙丑以後改磨鍊謄錄冊, 甲寅以後進士謄錄冊(1889 현풍)
	進上賻儀色	各色進上謄錄(1883 자인)

V. 맺음말

조선시대 지방관아는 중앙정부와 해당 지역민을 연결하는 중요기구로서, 지방재정의 운영, 중앙 및 각 영(營)·읍(邑)과의 소통, 지방민에 대한 직접적 통치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때문에 지역을 다스리기 위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간과 조직·사람이 필수적으로 존재하였고, 행정 업무의 결과를 통해 지방관아의 기록물이 생산되고 관리·보관되었다.

본 논문은 조선시대 중앙·지방·지역민의 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지방관아에 주목하여 지방관아의 조직과 업무에 따라 관리되었던 기록물의 종류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19세기에 작성된 영남지역 중기 6종을 중심으로 중기에 기록된 물목명 가운데 기록물류를 추출하여 지방관아에서 생산·관리된 기록물의 종류와 형태를 다루었다.

기록물을 살펴보기에 앞서 지방관아의 공간구성과 실제 업무를 담당했던 관속들의 업무 분장이 어떠한지를 우선 살펴보았다. 지방관아의 건물과 공간은 크게 수령의 통치공간과 생활공간, 관속들의 행정업무 공간, 양곡(糧穀)·세곡(稅穀) 등을 보관하는 창고 공간 등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지방관아의 형태가 비교적 상세히 묘사되어 있는 지역별 고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관아는 대규모 기관이었기에 조직구조도 상당히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 1893년 고성부(固城府)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관아의 관속이 153명 이상이었으며, 1889년 함안군 관아의 경우 관아 관속이 220명이었을 정도로 19세기 지방관아는 대규모 조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아의 조직은 크게 향청임(鄉廳任), 육방임(六房任), 기타 색임(其他 色任), 노비직 등 4개의 직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방관아의 핵심업무에 있어서는 육방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관아의 조직을 크게 육방임과 기타 색임으로 구분하였고, 육방임의 경우에는 호장(戶長)을 포함하여 이방(吏房)·호방(戶房)·형방(刑房)·병방(兵房)·예방(禮房)·공방(工房)의 업무와 해당 기록물을 살펴보고, 기타 색임의 경우에는 승발(承發), 도서원(都書員), 관청색(官廳色), 대동색(大同色), 군기색(軍器色), 속오색(束伍色), 창색(倉色), 통인(通引), 의생색(醫生色) 등의 업무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19세기 영남지역 중기 6종을 중심으로 중기에 기재되어 있는 물목명 가운데 기록물류를 추출하여 지방관아 기록물의 종류와 형태를 살펴본 결과, 지방관아에서 조직별로 관리하였던 기록물류는 크게 절목(節目), 사목(事目), 안(案), 대장(大帳), 완문(完文), 소지·원정 등의 소지류(所志類), 등록(謄錄) 등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절목’과 ‘사목’은 규칙, 규정, 규율의 성격을 가지며 이에 대한 항목·조목을 일일이 나열하는 형식을 보였으며, 지방관아의 호장·호방·예방·형방·공방 등 각 부서마다 관리하였던 주요 기록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안’은 사람의 인명, 토지, 물품 등의 정보를 기록한 기록물로, 사람·재물

등의 현황 파악, 변동사항 확인, 개인 발급을 위한 준거 자료 등의 업무 활용 및 참고용 자료로 사용되었다. ‘대장’도 인명·토지·재물 등의 정보를 담고 있지만, ‘큰 장부’라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에 수록되었던 정보에 비해 상당히 많은 양의 정보를 담았고, 이는 대장의 실제 크기와 규모, 분량 등의 측면에서 확인되었다.

완문은 향교·서원·문중·개인에게 어떤 사실이나 권리, 특권을 인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아에서 발급하였던 문서이며, 관아에서는 그 내용을 별도로 베껴 관리·보관하였던 기록물이다. 소지·원정·상송 등의 소지류는 특정인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밝히기 위해 관에 올린 탄원서이다. 자신이 속한 지방관아에 올린 탄원서를 소지라 하였고, 타지역 지방관아에 올린 탄원서를 원정이라 하였다. 중기 6종을 통해 지방관아 기록물에는 완문, 소지, 원정 등이 관리·보관되었던 정황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방관아 기록물의 중요한 형태로 등록을 들 수 있다. 등록은 관아의 일지류 형식, 단위과제별로 원본 공문서를 베껴 찬집한 형식, 단일 사안에 대한 보고서 형식 등 다양한 형식을 갖추었는데, 등록은 원본의 사본 제작을 통해 지방관아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보존을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었다.

참고문헌

求禮縣邑誌. ; 任實郡事例定錄. ; 高敞縣邑誌. ; 井邑縣邑事例. ; 牧民心書. ; 旌善叢瑣錄. ; 慈仁叢瑣錄. ; 咸安叢瑣錄. ; 固城叢瑣錄. ; 奉化縣 重記(1842년, 고려대 도서관, 만송 B8 A376). ; 永川郡 重記(1871년, 고려대 도서관, 육당B8 A52). ; 醴泉郡 重記(1887년, 동국대 경주도서관, DP08072). ; 慈仁縣 重記(1882년, 개인소장). ; 陝川郡 重記(1886년,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21842). ; 玄風縣 重記(1889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3633).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9. 『重記(Ⅱ)』. 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고성문화원. 2007. 『국역 고성총쇄록』. 고성: 고성문화원.

김기덕. 2004. 조선후기 지방관아건축의 배치구성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37: 7-19.

김태웅. 2000. 갑오개혁 전후 지방공문서관리의 변화. 『규장각』, 23: 141-155.

김필동. 1999. 『차별과 연대 : 조선사회의 신분과 조직』. 서울: 문학과지성사.

김혁. 2002. 조선후기 중앙관청 기록물에서 등록의 위상. 『서지학보』, 26: 93-111.

김현영. 2006. 조선시대 지방 관아에서의 기록의 생산과 보존. 『고문서연구』, 28: 25-37.

남권희, 진유라, 강유현. 2014. 조선후기 동래부의 萊府重記에 수록된 기록물 분석. 『서지학연구』, 60: 245-286.

- 남권희. 2002. 중기자료 분석에 의한 조선시대 지방 관아의 기록관리. 『사회과학』, 14: 57-99.
- 남권희. 2012. 慶尙道 安陰縣의 丁卯十一月日各項都重記 分析: 地方官衙의 記錄物을 중심으로. 『영남학』, 21: 203-255.
- 남권희. 2014. 조선후기 전라도 임실현 중기에 수록된 기록자료 분석. 『서지학연구』, 57: 5-50.
- 백선훈. 2007. 경국대전의 기록관리 규정. 『기록학연구』, 15: 95-140.
- 신병주. 2008. 조선후기 기록물 편찬과 관리. 『기록학연구』, 17: 39-84.
- 오향녕. 2008. 조선전기 기록관리 체계의 이해. 『기록학연구』, 17: 3-37.
- 윤훈표. 2000. 조선초기 공기록물 관리제의 개편. 『기록학연구』, 2: 129-168.
- 이수건. 1989.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사』. 서울: 민음사.
- 이한희. 2007. 조선시대 기록물의 생산 및 처리과정과 보존. 『서지학연구』, 37: 287-323.
- 이형중. 2012. 『조선시대 등록체계의 기록학적 의미와 현대적 변용』.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기록관리학전공.
- 이훈상. 1990. 『조선후기의 향리』. 서울: 일조각.
- 이희권. 1999. 『조선후기 지방통치 행정연구』. 서울: 집문당.
- 조미은. 2012. 19세기 解由文書와 重記에 관한 사례연구 -寧越府使 解由文書와 尹等內重記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40: 179-212.
- 진유라. 2015. 重記를 통해 본 호남지역 郡·縣의 기록물 분석. 『서지학연구』, 63: 303-336.
- 함안문화원. 2003. 『경상도함안군총쇄록(상·하)』. 함안: 함안문화원.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History book of Gulyehyeon*(求禮縣 邑誌) ; *History book of Gochanghyeon*(高敞縣 邑誌) ; *History book of Imsilgun*(任實郡 事例定錄) ; *History book of Jeongeubhyeon*(井邑縣 邑事例) ; *Jeongseon Chongswaelog*(旌善叢瑣錄) ; *Jain Chongswaelog*(慈仁叢瑣錄) ; *Haman Chongswaelog*(咸安叢瑣錄) ; *Goseong Chongswaelog*(固城叢瑣錄) ; *Mogminsimseo*(牧民心書) ; *Bonghwahyeon Jung-gi*(奉化縣 重記) ; *Yeongcheongun Jung-gi*(永川郡 重記) ; *Yecheongun Jung-gi*(醴泉郡 重記) ; *Jainhyeon Jung-gi*(慈仁縣 重記) ; *Habcheongun Jung-gi*(陝川郡 重記) ; *Hyeonpunghyeon Jung-gi*(玄風縣 重記)
- Baek, Seon-hyeo. 2007. "A Study on Records Management System through Kyeonggukdaejeon(經國大典)."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5: 95-140.

- Cho, Mi-Eun. 2012. "The Case Study on Haeyu Document and Junggi in 19th Century: Focused on Youngwol Busa Haeyu Document and Yundeungnaejunggi." *Journal of Korean Historical Manuscripts*, 40: 179-212.
- Goseong Cultural Center. 2007. *Goseong Chongswaelog*. Goseong: Goseong Cultural Center.
- Haman Cultural Center. 2003. *Haman Chongswaelog*. Haman: Haman Cultural Center.
- Jin, Yu-Ra. 2015. "An Analysis of the Records in Gun(郡) and Hyeon(縣) of Honam through Junggi(重記)."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63: 303-336.
- Kim, Hyeog. 2002.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Deungroks(謄錄) of Central Government Office in Late Joseon Period." *SEOJIHAKBO*, 26: 93-111.
- Kim, Hyun Young. 2006. "A Study on Creation and Preservation of Records of Local Government Office in Joseon Period." *Journal of Korean Historical Manuscripts*, 28: 25-37.
- Kim, Ki-Deok. 2004. "A Study on the Building Layout of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in the Late Chosun Dynasty."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37: 7-19.
- Kim, Pil-Dong. 1999. *Discrimination and solidarity*. Seoul: Moonji Publishing Company.
- Kim, Tai-Woong. 2000. "Transformation of Archival system before and after the Kabo Reformation." *Kyujanggak*, 23: 141-155.
- Lee, Han Hee. 2007. "The Creation, Management Process and Preservation of Archives in the Joseon Period."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37: 287-323.
- Lee, Hee-Kwon. 1999. *A Study of Local Ruling Administration in Later Choson*. Seoul: Jipmoondang.
- Lee, Hoon-Sang. *Local Functionary(鄉吏) in Late Chosun*. Seoul: Lilchokak.
- Lee, Hyeong-jung. 2012. *A study on the archival meaning and contemporary transformation of Joseon Dynasty's deung-rok(謄錄) system*. M.A.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e, Sang-sik. 2006. "The Regional System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Principle by Yeojidoseo in Late Chosun." *The Journal for the Studies of Korean History*, 25: 465-494.
- Lee, Soo-Geon. 1989. *The History of the Local Administration in Chosun Dynasty*. Seoul: Minumsa.
- Nam, Kwon Heui. 2012. "An Analysis of Jeungmyosibilwolil Gahangdo account

- document (丁卯十一月日各項都重記) at Ahnueum County(安陰縣) in Kyungsang Provinces.” *Journal of Youngnam Culture*, 21: 203–255.
- Nam, Kwon-Hee, Jin, Yu-Ra and Kang, Yu-Hyeon. 2014. “Analysis of records in Dongnaebu’ s Raebujunggi.”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60: 245–286.
- Nam, Kwon-hee. 2002. “A Bibliographical Study of Jung-gi(重記).” *Discourse and Policy in Social Science*, 14: 57–99.
- Nam, Kwon-hee. 2014. “An Analysis of Archives Included ‘Account Document’ at Imsil County(任實縣) in Jeolla Provinces in the Late Joseon Period.”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57: 5–50.
- Oh, Hang-Nyeong. 2008. “An Understanding of the Archival Management in Early Joseon Dynasty.”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7: 3–37.
- Shin, Byung Ju. 2008. “Compilation of records and Management of those materials, in the latter half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7: 39–84.
- Yoon, Hoon-Pyo. 2000. “The Reorganization of Archival system in the Early Stage of the Joseon Dynasty.”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 129–168.
- Youngnam Culture Institute. 2009. *Jung-gi(重記)*. Daeg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ress.